

자율 이동 로봇의 실시간 제어를 위한 가·감속 함수의 개발

이수종*, 정원지**

Development of Acceleration/Deceleration Function for Real-time Control of Autonomous Mobile Robots

Soo Jong Lee*, Won Jee Chung**

Abstract

This article presents a new acceleration/deceleration method for real-time control of autonomous mobile robots. In this method, a function which produces the table of acceleration/deceleration in real-time is proposed. This function, while satisfying the basic concept of mechanics, can choose both various ranges of velocity and distance ranges for the selected velocities. Moreover it can control motors in real time. This function is convenient to be realized by programming. In addition, it is faster than other functions because it can be written by assembly language.

Key Words : Acceleration/deceleration method, Real-time control of autonomous mobile robots, Velocity control.

1. 서 론

임의의 물체를 빠른 속도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간에 맞는 가·감속의 속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 계획은 위치 제어와 맞물려 있고, 각각의 영역에 할당되는 구간이 달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그리고 역학적인 해석에 맞는 속도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로봇에서 사용할 동력원을 선택할 때에는 필요한 토크와 관성 부하 등을 고려해서 선택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한 동력원은, 이후로는 모두 역학적 해석에 의한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봇의 속도 제어 함수로는 사다리꼴 함수를 채택하는데⁽¹⁾, 장점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가 쉽고, CPU의 연산 처리 속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산 처리 방식은 매우 많이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모터의 속도 제어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빠른 고속 제어와 위치 제어를 하고 싶을 때에는 역학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속도 제어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 그리고 그 속도 한계의 선택에 있어서 로봇에 자율

* 시크릿뱅크넷
** 창원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wjchung@sarim.changwon.ac.kr)

권을 부여해야 함으로 사다리꼴 함수와 같은 간단한 가감속 테이블(table) 생성 함수를 가지고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

고속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역학적 개념과, 이것을 연산 처리하는 제어기의 연산 속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를 소개하고, 이 함수의 장점과 그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가·감속을 위한 조건

모터를 가감속을 하는 이유는, 임의의 주어진 일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급격한 속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관성력을 제어하기 위해서이고 진동에 대한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속한 운동을 요하는 거의 모든 기계 운동 메카니즘에 필수적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문 같은 경우에 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늦게 열린다거나, 혹은 빨리 열리게 하기 위해서 모터에 급격한 속도를 요하면 관성력 때문에 자동문 각각의 요소에 무리를 일으켜서 제품의 수명을 짧아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문을 제어해야 높은 속도와 제품의 수명 연장,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자동문뿐만이 아니라 고속 전철에서 승객이 가속도에 저항을 민감하게 받지 않게 하면서 요구하는 속도에 가장 짧은 시간에 도달할 것인가, 혹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승객의 체감 중력과 속도 관계’ 등과 같은 종류의 문제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문제는 속도 함수의 불연속 점을 제거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모터의 제어 그래프로서 사다리꼴 함수⁽¹⁾의 단점은 가속 구간에서 등속 구간으로 바뀔 때,

가속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함으로써 카운터(counter)계산에 오차(error)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불연속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속도를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속도 함수를 미분한 가속도 함수가 불연속 점 없이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로봇의 속도를 계속해서 가속할 수 없으므로 등속을 요구하게 되는데, 등속을 할 때의 가속도는 영(zero)이 됨으로 정지에서 가속이 시작되어 끝나는 양끝 구간은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가 반드시 영(zero)가 되어야 한다. 예로 Fig.2.1에서는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A점에서의 가속도가 영(zero)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함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 연산 처리 속도의 부담을 줄이고 실시간에 계속 변하는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에 맞는 속도 테이블을 산출하기 위해서 CPU의 연산에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⁶⁾

이러한 것을 만족한다면 로봇은 더욱 다양한 가속 구간과 속도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활성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며, 요즘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로봇의 동력학적인 움직임에 가장 알맞은 함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속도 함수 $v(x)$ 는 전구간에서 1계 도함수 $a(x)$ 가 연속이어야 하며, 속도 함수 $v(x)$ 의 저크 $j(x)$ 가 전구간에서 유한 값을 가져야 한다.

2.2 기준에 알려져 있는 가감속 함수

속도 함수의 선택에 있어서는 캠(cam) 설계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크(jerk) 개념⁽²⁾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 함수의 선택에서는 4이상의 차수를 가지는 함수와, 초월 함수로는 단순 조화 함수,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함수 등을 사용한다⁽³⁾.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인 함수로서 우리가 역학적 요건에 맞는(가속도의 변화량이 연속적이게 하는) 함수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CPU의 연산 처리 속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CPU가 할 수 있는 연산 방법은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른 DSP(Digital Signal Processor) 일지라도 사칙 연산뿐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함수들이 역학적 해석에는 맞을 지라도 연산 처리 속도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예로서 단순 조화 함수인 사인(sine) 함수를 선택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CPU에서는 테일러 시리즈(Tay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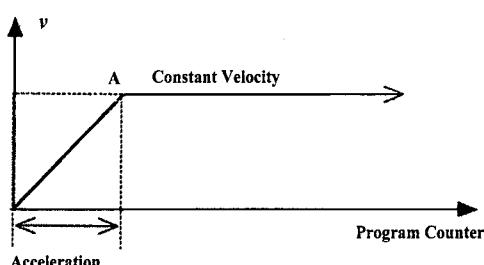


Fig 2.1 Velocity Table

series)의 멱급수⁽⁴⁾로 표현되어 연산되고, 필연적으로 수많은 곱셈과 덧셈 연산을 거치게 된다.

$$\sin x = x - \frac{x^3}{3!} + \cdots + \frac{(-1)^k}{(2k+1)!} (x)^{2k+1} + \cdots \quad (2.2)$$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화 함수의 사용은 지양되고, 다항식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다항식 함수에 사용되는 곱셈 연산도, CPU가 계산하는 다른 명령 수행에 비해 수십 배에 해당하는 시간 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시간 제어를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로봇이 움직이기 전에 궤적 계획을 세운 후 가속 영역과 등속 영역을 나누고 그것에 맞는 속도 테이블을 만든 후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3. 분수 함수의 소개

3.1 분수 함수의 개형 및 특징

연속적인 미분에도 영(zero)이 되지 않는 것은 비단, 조화 함수나 지수 함수가 아닐지라도 일반 사칙 연산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수 함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할 분수 함수의 형태는 식 (3.1-1)에서 볼 수 있듯이 총, 3회의 곱셈과, 1회의 나눗셈, 그리고, 1회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함수를 속도 함수로 선택하였을 때의 역학적인 해석을 위해서 그래프의 요철과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v(x) = \frac{nx}{mx^2 + \alpha} \quad (3.1-1)$$

$$v'(x) = \frac{an - mn x^2}{(mx^2 + \alpha)^2} = a(x) \quad (3.1-2)$$

$$v''(x) = \frac{2mn x(m x^2 - 3a)}{(m x^2 + \alpha)^3} = j(x) \quad (3.1-3)$$

(여기서의 n, m, α 는 상수이고, x 는 프로그램 카운터(program counter)라 할 수 있는데, 시간의 다른 표현임)

이 분수 함수는 식 (3.1-2)에서 알 수 있듯 두 개의 극 대 값을 $x = \pm \sqrt{\frac{\alpha}{m}}$ 에서 가지고, 세 개의 변곡점을 $x = 0, \pm \sqrt{\frac{3\alpha}{m}}$ 에서 가진다. 또한, 좌극한과 우극한이 영(zero)으로 수렴하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Fig.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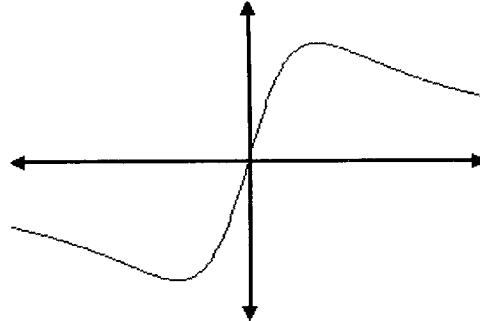


Fig 3.1 분수함수의 $v'(x)$

이 분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의 영역의 구간만을 취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극점에서의 가속도가 영(zero)으로 진입하므로, 이 점을 기점으로 등속으로 진입할 수 있고, 다른 그래프와의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적 그래프의 개형은 Fig 3.2와 같다 (Fig 3.2에서 수평 좌표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축으로, 수직 좌표는 속도 축으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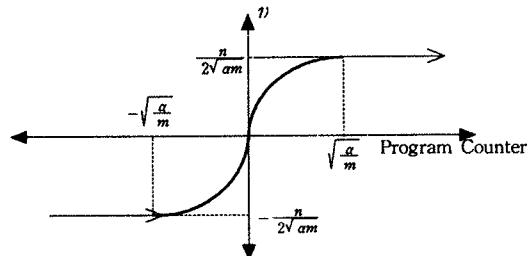


Fig 3.2 $v(x)$

이 분수 함수를 속도 함수로 선택했을 때, 동력원에 걸리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분석하면 $x = 0$ 인 곳에 가장 큰 힘을 받으며, 이때의 가속도는 $a(x) = v'_{x=0} = \frac{n}{a}$ 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식(3.1-1)에서의 속도 함수에서 상수 m 은 가속도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변수 a 가 커질수록 가속도는 작아지고, n 이 커질수록 가속도는 커진다. 카운터의 변화는 양수만을 가지므로 Fig 3.2의 그래프는 좌표 이동을 해야 한다. Fig 3.3와 식 (3.1-4)은 좌표 이동 ($\sqrt{\frac{\alpha}{m}}, \frac{1}{2\sqrt{am}}$)을 한 최종적인 그래프와 수식이다.

$$v(x) = \frac{n(x - \sqrt{\frac{\alpha}{m}})}{m(x - \sqrt{\frac{\alpha}{m}})^2 + a} + \frac{1}{2} \frac{n}{\sqrt{am}} \quad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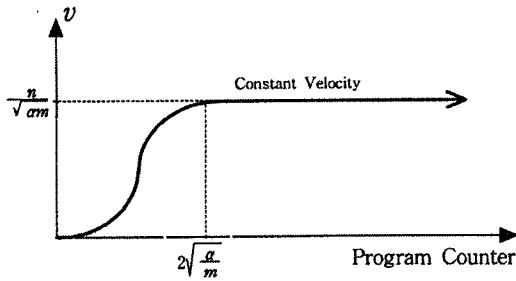


Fig 3.3

3.2 분수 함수의 V-A-J 선도

우리가 분수 함수를 속도 함수로 선택하였을 때 분수 함수의 역학적인 해석 및 적용을 위해서 가속도 선도와 저크(jerk)선도를 그려본 후, 요철과 가속도의 연속과 불연속을 고찰해야 한다.

Fig 3.4은 앞에서 설명한 분수 함수 식(3.1-4)의 V-A-J선도이다. Fig 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분수 함수를 속도 함수로 선택하였을 때에는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점프(jump)가 발생하지 않으나 가속도에서 등속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불연속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수 함수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수 함수 외에 또 다른 함수를 합성을 하여 저크

(jerk)선도의 연결점을 연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3.3 분수 함수의 합성

속도 함수를 우리가 지향하는 형태를 만족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속도함수를 미분한 가속도선도가 불연속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극점과 변곡점이 일치되어야 하는 그래프 개형상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려는 분수 함수에 임의의 함수 $f(x)$ 를 더하여, 그래프 Fig 3.4에서처럼 가속도 함수를 연속적이게 만들어야 한다.

$$v(x) = \frac{nx}{mx^2 + \alpha} + f(x) \quad (3.3)$$

또한, $f(x)$ 는 분수 함수와 같이 일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서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식(3.3)의 2차 도함수 즉, 저크 함수 $j(x)$ 가 연속적인 특징을 만족시키기 위한 임의의 함수 $f(x)$ 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작업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분 기하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배경으로 하여서, 함수 $f(x)$ 를 일단 예측할 필요가 있다.

분수 함수는 단순 조화 함수와 같이 초월 함수에 속하므로 앞에서의 분수 함수의 그래프 개형 Fig 3.2의 형태는 Sine함수와 유사성을 띤다. 우리는 단순 조화 함수만을 가지고는 jerk함수의 연속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함수와의 합성을 통해서 사이클로이드 변위 함수를 만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식 (3.3)에서 $f(x)$ 는 일반 함수의 곱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3.4 \text{ 함수 } v(x) = \frac{nx}{mx^2 + \alpha} + f(x) \text{ 의 예측}$$

우선, 함수 $f(x)$ 를 예측하여 $f(x) = \beta x$ 로 놓고 이 속도 함수($v(x)$)의 개형의 극한값을 고찰하면 변수 x 를 $\pm\infty$ 로 취했을 때, 양 끝단이 기울기 β 에 수렴함으로 $\lim_{x \rightarrow \pm\infty} v(x)$ 의 점근선이 기울기 β 임을 알 수 있다.

$$\lim_{x \rightarrow \pm\infty} \frac{nx}{mx^2 + \alpha} + f(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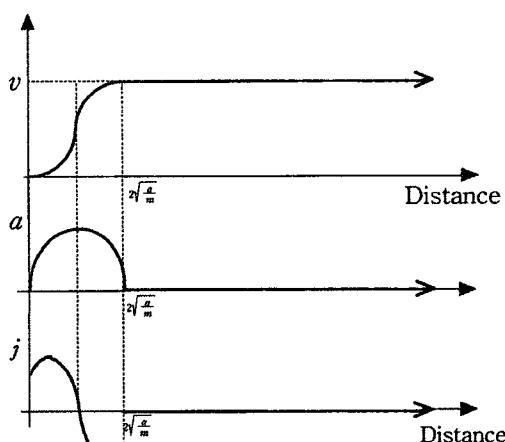


Fig 3.4

$$\begin{aligned}
 &= \lim_{x \rightarrow \pm\infty} \frac{\frac{x}{m + \frac{\alpha}{x^2}} + f(\pm\infty)}{n} \\
 &= f(\pm\infty) = \beta(\pm\infty)
 \end{aligned} \tag{3.4}$$

따라서 속도 함수 $v(x)$ 가 임의의 함수 $f(x)$ 를 더하기 전의 그래프 개형이 Fig3.1에서의 좌우 극한 값이 0으로 수렴한 것에 비해서 $f(x)$ 를 더한 후, 기울기 β 에 수렴함으로 β 값의 조작에 의해서 Fig3.1에서 분리된 극점과 변곡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5 함수 $f(x)$ 의 결정

$f(x)$ 의 함숫값을 가장 단순한 일차 함숫값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속도 함수($v(x)$)의 2차 도함수인 저크($j(x)$)함수에서는 $f(x)$ 가 소멸되기 때문에 저크 함숫값을 Zero로 만드는 x 값은 변함없이 $x = 0, \sqrt{\frac{3\alpha}{m}}$ 에서 변곡점을 가진다.

$$v(x) = \frac{nx}{mx^2 + \alpha} + \beta x \tag{3.5-1}$$

$$a(x) = \frac{an - mnx^2}{(mx^2 + \alpha)^2} + \beta = v'(x) \tag{3.5-2}$$

$$j(x) = \frac{2mnx(mx^2 - 3\alpha)}{(mx^2 + \alpha)^3} = v''(x) \tag{3.5-3}$$

여기서 변곡점과 극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a(x)$ 함수가 $a(x = \pm\sqrt{\frac{3\alpha}{m}}) = 0$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속도 함숫값인 β 는 $\beta = \frac{n}{8a}$ 인 값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속도 함숫값 $v(x)$ 와 가속도 함숫값 $a(x)$ 그리고 저크(jerk) 함숫값 $j(x)$ 는 다음과 같으며 이것을 이용하여 가속도 구간에서 등속 구간으로 진입할 때의 V-A-J선도는 Fig 3.5와 같다.

$$\hat{v}(x) = \frac{n\hat{x}}{m\hat{x}^2 + \alpha} + \frac{n}{8a}\hat{x} \tag{3.5-4}$$

$$\hat{a}(x) = \frac{n(\sqrt{m\hat{x}} - \sqrt{3\alpha})^2(\sqrt{m\hat{x}} + \sqrt{3\alpha})^2}{8\alpha(m\hat{x}^2 + \alpha)^2} = \hat{v}'(x) \tag{3.5-5}$$

$$\hat{j}(x) = \frac{2mnx(m\hat{x}^2 - 3\alpha)}{(m\hat{x}^2 + \alpha)^3} = \hat{v}''(x) \tag{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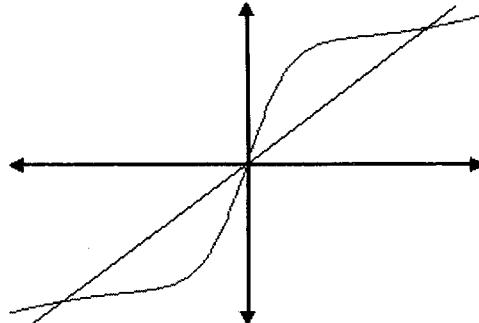


Fig.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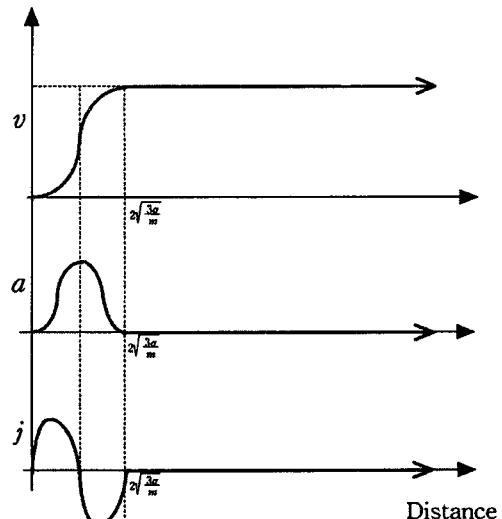


Fig. 3.6

(여기서, $\hat{v}(x) = \frac{3n}{8\alpha}\sqrt{\frac{3\alpha}{m}}, \hat{x} = x - \sqrt{\frac{3\alpha}{m}}$ 이고, $\hat{a}(x), \hat{j}(x)$ 는 각각 $\hat{v}(x)$ 의 1계, 2계 도함수를 나타낸다.)

4. 속도 함숫값 $\hat{v}(x) = \frac{n\hat{x}}{m\hat{x}^2 + \alpha} + \frac{n}{8a}\hat{x}$ 의 활용

본 논문에서 도출한 이 속도 함숫값은 그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일반 제어 이론에서 알려진 함숫값들에 비해서 최소한의 곱셈 연산과 나눗셈 연산으로 CPU는 연산 처리 속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역학적인 안전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가속도 테이블을 산출할 수 있다. 앞의 수식 3.5-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함숫값이 산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속도의 크기는 $x = 0$ 일 때인데, 그 크기는

$a(0) = \frac{9n}{8\alpha}$ 이고, 변수 m 은 가속도의 크기의 변화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1로 놓을 수 있다.

따라서, 가속하려는 구간의 카운터는 Fig 3.6에서의 속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속 구간이 $2\sqrt{3\alpha}$ 이고 증가 속도는 $3n\sqrt{3\alpha}/4\alpha$ 인 크기를 가진다.

우리는 여기서 상수 α, n 을 조작함으로써, 가속구간과 원하는 속도를 얻을 수 있다.

5.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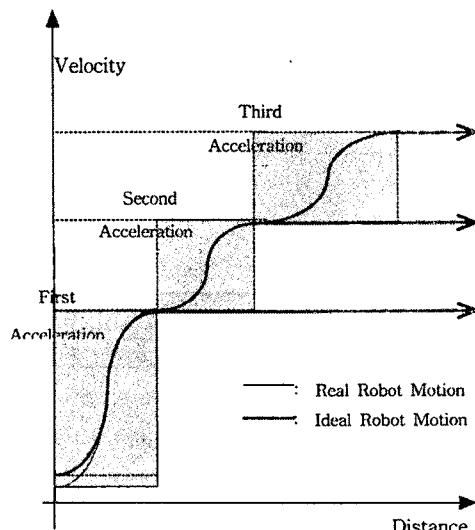


Fig. 3.7

위 Fig 3.7은 실제 실험에서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1.2.3차 가속에서 가속영역과 도달하고자 하는 속도를 각각 다르게 적용해 보았으며, 1 차 가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론적인 속도 그래프와 동일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가속에서, 로봇 자체의 관성력에 의해서 입력 속도에 비해서 늦게 반응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 속도를 늦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임의의 물성체를 제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 감속의 제어 이론을 역학적 해석뿐만 아니라, 이것을 CPU의 연산 처리 속도에 부담이 적어서 실시간에 구현할 수 있는 가 감속 제어 함수를 소개하였다. 이 속도 함

수는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함수나 다른 삼각 함수의 곱인 단순 조화 함수(simple harmonic function)같은 함수에 비해서 다음 세 가지의 두드러진 장점을 가진다.

첫째, 프로그램 상의 구현이 쉽고, 더욱이 어셈블리로 구현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연산 처리 속도가 타 함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둘째, 이 분수 함수로 가감속 구간의 다양한 선택에 있어서 그 조작이 용이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속도의 산출 또한 매우 쉽다.

셋째, 이것을 구현했을 때, 차지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함수에 비하여 매우 적으므로 소형의 모터 제어 컨트롤러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의 실험의 적용에 있어서 스템핑 모터를 이용해서 실험하였으며, 그 실험 내용은 짧은 가속 구간으로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과 그리고, 모터의 탈조 영역에 접근하였을 때의 고속 제어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모든 것은 어셈블리로 작성하였고, 초고속의 실험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았다.

후기

본 연구는 한국 과학 재단 지정 창원대학교 공작 기계 기술 연구 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본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 김효수군 및 기계설계공학과 대학원생 염태진군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 (1) 세운출판사 편집부, “스테핑 모터의 활용 기술”, 세운 출판사, 1995.
- (2) B. I. Sandor, Engineering Mechanics & Dynamics, Second edition, Prentice-Hall, Inc., 1987
- (3) 성안당 편집부, “메카트로닉스를 위한 모터제어기술”, 성안당, 1996.
- (4) 윤덕용, “DSP시리즈, TMS320C31 마스터”, Omh사, 1998.
- (5) 김문상, 정우진, 여인택, 이충동, “밸딩용 도우미 로봇”, 한국정밀공학회지 제17권 9호, 2000..
- (6) 이찬홍, “초정밀위치결정 기술”, 한국정밀공학회지 제17권 12호, 2000.